

공동체 소식

▣ 2차헌금 안내
 - 15일(일) 가톨릭대학교 후원을 위한 2차 헌금있습니다.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 평신도 협의회
 - 15일(일) 오후 1시 나자렛관

▣ 교구대회 본당모임 안내
 - 22일(일) 오후 1시 나자렛관

▣ 주일학교 안내
 - 매주일 오전 10시 나자렛관(8901 Haskins st. Lenexa KS)
 - 주일학교 자리는 해설대 쪽 앞 1열~4열까지입니다.

▣ 구역 최종확정
 - I-435와 US-69를 동서와 남북 기준으로 하여 구역 최종 조정 했습니다.
 - 4구역은 Nall을 기준으로 서쪽은 1반, 동쪽은 2반
 - 1,2,3구역은 1반만으로 운영되며 추후 인원 증가시 2반으로 나눕니다.
 - 게시판 참조

- 1구역 : I-435 북쪽, us-69 서쪽
 구역장 (김명희 루드비나) - 10가정
 김화년, 박계숙, 박옥희, 박태주, 이영민, 임보람, 정석원, 정연숙, 조지연, 조진환
- 2구역 : I-435 북쪽, us-69 동쪽
 구역장(김시연 엘리사벳) - 8가정
 강병국, 김정원, 김정훈(이은미), 김태중, 이내익, 이우석, 천주영, 현교정
- 3구역 : I-435 남쪽, us-69 서쪽
 구역장 (미정) - 10가정
 감영진, 강승석,고영방, 김창식, 김호원, 문석찬, 박희영, 안재완, 이미경, 홍순익
- 4구역 : I-435 남쪽, us-69 동쪽
 구역장(차상욱 펠릭스), Nall을 기준으로 동서로 나뉘짐
 *1반 (반장: 차상욱 펠릭스) - Nall 서쪽
 강승호, 김병철, 박민, 이우영, 정수한, 차상욱 - 6가정
 *2반 (반장:최선윤 마리아)- Nall 동쪽
 김대연, 김동술, 김지섭, 안병환, 이경남, 차호섭 - 6가정

▣ 이민자의 날 미사 안내
 - 일시 : 9월 29일(일) 오후 4시
 - 장소 : 성 파트리치오 성당(St. Patrick's Church in Kansas City) (1086 N 94st. Kansas City, KS 66112)
 - 교구장 주교님을 모시고 이민자의 날 미사가 봉헌됩니다.
 - 전신자 미사 참여합니다.
 - 1독서와 예물봉헌 등 한인공동체가 담당합니다.
 - 한복 있으신 분들은 한복 입으시기 바랍니다.
 - 오전 11시 교중미사 있습니다.
 - 평협회에서 관련된 내용 공지하겠습니다.

▣ 전례 상식
 - 주일에 타지역에 있는 경우 해당 지역 성당(한인/미국)에서 주일미사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미사 참례를 못할 경우 고해성사를 하시고 영성체 하셔야 합니다.
 - 전례봉사자는 미사 참례전 고해성사로 몸과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 주일헌금은 자선행위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느님께서 무엇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일주일간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주시는 은혜에 다시 내가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 행위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 성당의 중심은 제대입니다. 제대 앞을 지나갈때는 깊은 절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 전례 성가

	입 당	예 물	성 체	파 건
금 주	16	512	160	26
차 주	287	218	498	285

▣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 주	박태주(로마노)	김병철(베네딕도) 김경희(스콜라스티카)
차 주	김대연(요셉)	김태중(예레미아) 김시연(엘리사벳)

▣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중복사
금 주	정예찬(미카엘)	김지안(요한) 김정원(안젤라)
차 주	고평원(프란시스코)	김정훈(로베르또) 정예진(한나)

▣ 헌금 봉사자

금 주	홍순익(마르티노), 차상욱(펠릭스)
차 주	김태중(예레미아), 이우영(가브리엘)

▣ 애찬 봉사자

금 주	2조: 최은미, 장보혜, 조경희
차 주	3조: 김주연, 박희영, 이영민

▣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 기다리십니다.
 - 매월 첫 주일 성당 지하 청소합니다.
 - 매 주일미사 후 간단하게 뒷정리 합니다.
 - 청소 담당은 편의상 구역을 나눴을뿐 많은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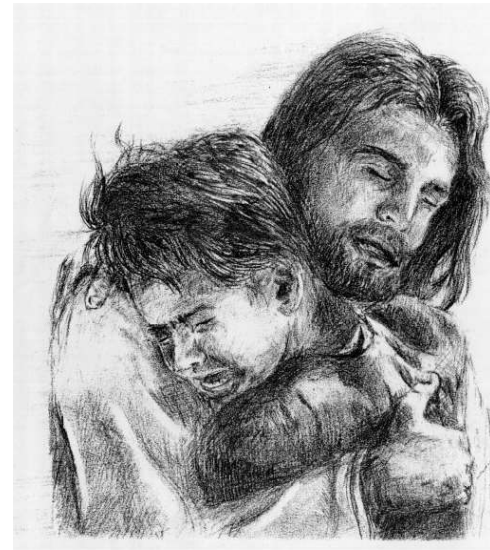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 요 일: 10:00 A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신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복자 정약종 아우구스티노 한인성당
 Blessed Jeong, YakJong Augustine Korean Catholic Community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www.kckcatholic.org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korean1481@gmail.com
 회 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총 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유아세례: 전례부에 신청
 주일학교: 주일오전10시
 나자렛관 (8월 25일)



오늘의 전례

오늘은 연중 제24주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종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사랑을 거부하는 고집 센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중개하시는 아드님의 공로로, 회개하는 죄인 하나를 위해서도 교회는 천사들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그림 묵상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루카 15,7

제 1 독 서 :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32,7-11.13-14
 <주님께서는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 ◎ 일어나 아버지께 가리라.
-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씀하셔서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 주님, 제 입술을 열어 주소서. 제 입이 당신을 찬양하오리다. 하느님께 드리는 제물은 부서진 영. 부서지고 누우치는 마음을, 하느님, 당신은 업신여기지 않으시나이다. ◎

제 2 독 서 : 사도 바오로의 티모테오 1서 말씀입니다. 1,12-17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알렐루야.

복 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5,1-32
 <하늘에서는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생명의 말씀

실패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가장 많은 것은 비유입니다. 마르코복음은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마르 4,34)고 기록할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당시의 일상 안에서, 사람들의 생활 안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을 다룹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루카복음 15장은 하나의 주제에 여러 비유를 담고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되찾은’ 것들에 관한 것이고 다른 입장에서 보면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되찾은 양의 비유, 되찾은 은전의 비유 그리고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 교부들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감탄을 자아냈던 내용입니다.

세 비유는 공통적으로 되찾음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낯설지 않은 목자를 통해 첫째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단지 양을 키우는 직업 그 이상이었습니다. 양 떼와 매일매일의 삶을 같이했던 목자는 양이 좋은 풀을 뜯도록 안내하고, 더위에 지치거나 아픈 양을 걱정하고 돌봐줍니다. 그에게 양 떼는 식구와도 같습니다. 이런 목자에게 잃었던 양을 되찾는 것은 큰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한 가정으로 향합니다. 하루 종일 거의 집에서 생활하며 집안의 모든 살림을 챙기는 것은 여인들의 몫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여인의 삶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최선을 다해 은전을 찾은 여인은 말합니다. “나와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은전을 찾았습니다.” 예전에는 탕자의 비유라고도 불렸던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 복음서의 그 어떤 비유보다도 하느님과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도로 찾았다.”

하느님은 되찾고 기뻐합니다. 무엇보다 잃었던 것들은 이미 하느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원래의 자리를 떠나 다른 자리에 있는, 가던 길을 벗어나 다른 길로 접어든, 하느님 앞에 있었지만 하느님을 피해 어디론가 사라진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제 자리로, 원래의 자리로 되돌리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를 말할 때, 항상 그 바탕에 있는 것은 하느님의 자비입니다. 하느님은 애써 잃은 양을 찾는 목자나 온 집안을 살살이 뒤져 은전을 찾아내는 부인이나

집 떠난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분은 애써 찾아 나서고,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되돌아온 이들을 기쁨으로 맞아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주 벌을 내리는 것에 실패합니다.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탈출 32,14) 실패를 주저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다른 모습은 자비입니다. 그 자비는 우리에게 주어진, 변화할 수 있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나의 원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허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스승님. 항아리에
받아 놓은 물이 썩은 듯합니다.
어찌할까요?

어찌하기는,
비워내야지.
비워내야 깨끗하고 시원한 샘물을 담을 수 있지.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루카 14,33)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나의 친구 비비안나

그날은 몹시 비가 내렸습니다. 저는 한 봉사 단체에서 회원들에게 간행물을 발송하는 작업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인지 봉사자는 저 혼자였습니다. 일이 많지 않았기에 한 시간 30분쯤 작업을 하고 난 후 담당 수녀님께서서는 오늘은 이것으로 충분하니까 따뜻한 차 한잔하자고 하시며 밖으로 절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근처 찻집에서 오붓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수녀님께서 편하게 대해주셔서인지 저는 저의 힘든 마음을 꺼냈던 것 같습니다. “수녀님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책을 좋아하고 글을 쓰고 싶었는데요, 생각보다 일찍 결혼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남편에게도 부모 형제에게도 못 했던 말을 수녀님께 두서없이 꺼내놓았습니다. 수녀님께서 “잠시만요.” 하시고는 밖으로 나가셨고, 곧이어 푸른색 표지에 가지고 다니기 좋은 노트 한 권을 사 오시더니 첫 장에 ‘나의 친구 비비안나, 다시 공부를 시작하고 글을 쓰기 바라요’라는 글을 써 주셨습니다.

자신감 없고 부끄러워하던 저에게 사랑과 용기를 주신 수녀님을 통해서 처음으로 성체를 모셨던 순간처럼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푸른색 표지로 된 노트에 조심스럽게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며칠을 건너뛰고 노트를 펼칠 때는 수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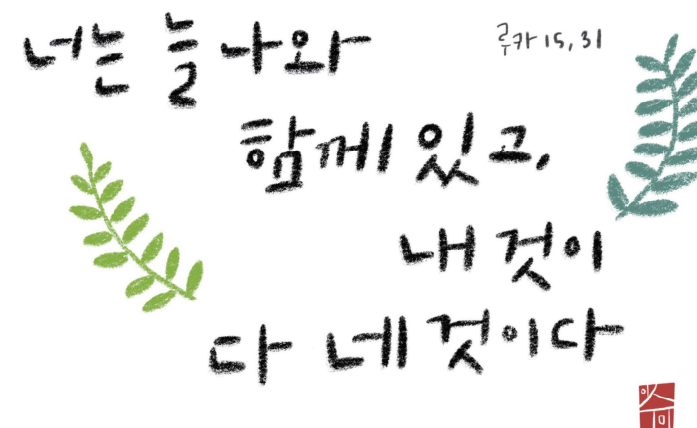
님께서 말씀하시던 순간이 생각나서 다시 한 줄을 쓰고 이어서 쓰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다니던 셋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큰아이가 학년이 올라가자 거실에 큰 상을 펴 놓고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지만, 제가 원하는 공부를 위해서 대학원에 들어간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함께 책을 보고 함께 공부하는 분위기가 저를 위한 시간으로 움직여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원 공부를 시작했지만, 대학원을 졸업하고도 한참을 등단하지 못한 저는 갈수록 자신감이 떨어졌고 반복되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깊은 절망 속에서도 수녀님께서 제게 적어주셨던 ‘친구’라는 말이 따뜻하게 저를 일으켜 세우곤 했습니다. 지금도 학생들이나 신자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계시는 수녀님, 언제 어디서나 당신의 소명을 다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히 수녀님을 친구라고 부르며 제가 흔들릴 때마다 노트를 펼쳐봅니다. 노트 안에서 수녀님은 그때 그 모습으로 밝게 웃고 계십니다.

김해선 비비안나 | 시인

복음묵상



캘리그래피 이수미 율리안나